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벌시를 받으리라

우리 속에 성적인 에너지를 통제하는 축복의 외부적 도구가 '가정' 이라고 한다면 그 속의 근본적인 내용은 참된 사랑의 힘과 감격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갖는 힘과 감격을 다시 기대하며 회복하게 되길 축복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움직임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랑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묘사들을 정리해 보라.

사랑의 가치를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에너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것들보다 무한한 가치와 감격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용기와 삶을 향한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힘을 경험한 사람. 그는 사랑함을 배우려고 할 것이며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음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누림으로 모든 정욕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이라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 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놀라운 비밀과 연관시켜 도전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가정' 이 주는 축복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문은 결혼의 과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는 무엇에 관한 비밀을 말하는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속에 넘치는 정욕으로 인하여 '음란' 함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정욕을 바른 통로를 통하여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바 그것이 '가정' 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에너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정' 의 의미를 교회와 주님의 관계의 놀라운 비밀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음은 정말 깊게 음미해 보아야만 한다. 당신이 만약 싱글이라면 당신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가정' 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미 당신이 축복의 통로인 '가정' 안에 있다면 얼마나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우리는 이 7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음란함에 휘둘려 살고 넘어지는가? 음란함의 뿌리는 얼마나 깊으며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정의하시는 간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주님이 제안하시는 실천 지침은 무엇인가?

- 왜 그런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바울이 음행의 문제가 더 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음행의 뿌리가 단순히 행위의 유무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제임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깊은 가를 설명하신다. 그렇다. 누구도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죄와는 달리 우리의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 여파와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에 몸 안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와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값을 주고 산물이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